

제1회 으뜸교사상 수상자

현직교사

강기룡 일산은행초등학교
 이임구 인천예일고등학교
 김상선 대구보명학교
 우제환 대전전민고등학교
 강해정 삼원초등학교
 류해수 태화중학교
 이혜숙 창평중학교
 제준모 부산공업고등학교
 박은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이혁선 용산초등학교
 이용수 계촌중학교
 김혜숙 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장
 배로현 광주운암초등학교
 황영란 금산초등학교

퇴직교원

이숙희 전 광주초등학교
 최진성 전 인천연성초등학교
 이종원 전 대구과학고등학교
 임자빈 전 수촌초등학교



분홍색 소시지 반찬 하나면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난로 위 옹기종기 양은도시락이 쌓이면
 마음까지 따뜻하게 익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전내주신 꿀맛 같던 도시락
 이제는 도시락도 변해 추억 맛이 되었지만,
 이 땅의 선생님들 가르침 속에서
 양은도시락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제26회 스승의날

사랑한다 얘들아!
 고마워요 선생님



축사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총리 김신일입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제1회 유품교사상을 받으신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유품교사상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어 여러분의 기쁨이 더할 것이라 생각하니 더 더욱 반갑습니다. 이런 영예를 얻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로 뒷바라지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품교사상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지도 및 학생지도에 뛰어난 공적을 나타내는 선생님을 발굴하여 유품교사의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묵묵히 최선을 다해 교직의 길을 걷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드리고 범사회적으로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랑과 열정을 다해 교과지도와 인성교육에 힘쓰시고, 또 퇴직을 하셨음에도 사회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일구심으로써 유품교사의 영예에 아주 걸맞은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유품교사 인증을 계기로 하여 창의와 열정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풍토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스물여섯 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때 맞춰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의 은공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권 침해를 비롯해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질 수록 우리 교육의 밝고 건강한 미래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품교사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며 40만 교원의 사표입니다.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희망을 가꾸는 일에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품교사상 수상을 거듭 축하드리며,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15.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심사평

제 1회 유품교사상 심사위원장 김재복
(경인교육대학교 전 총장)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교사의 질적 수준은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최상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교육의 만연(蔓延)과 더불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이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 교수·학습 자료의 확보, 급당 학생 수의 축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다.

이번 유품교사상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지도 및 학생지도에 우수한 공적을 나타내는 모범교사를 발굴하여 영예를 부여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인증·수여하는 영예의 상이다. 이상은 각 시·도교육청이 엄정히 심사하여 1순위로 추천한 현직교사 14명과 퇴직교원 4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이 현지 실사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촉한 별도의 선정위원회(6명의 인사로 구성)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한 포상과 퇴직교원을 포함한 18명 전원에게 유품교사 인증서의 수여를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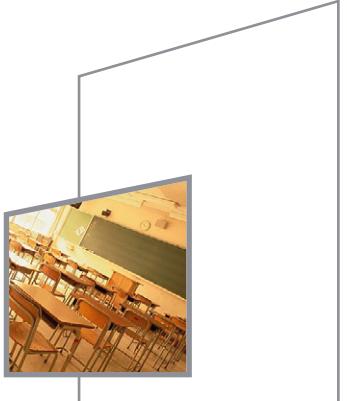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추천된 18명의 현직교사와 퇴직교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혼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감복(感服)하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특히 강기룡 선생님의 창의적인 탐구수업을 통한 재능 발굴과 큰 꿈을 키워주는 과정이 돋보였으며, 이임구, 김상선 선생님의 인성교육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 감명을 주었다. 우제환, 강해정, 류해수, 이해숙 선생님의 새로운 학습지도 방법과 교육적 활동도 모범 사례로 꼽기에 충분하였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좋은 교육과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꾸미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퇴직교원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교육과 좋은 학교 꾸미기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혼신적 노력은 유품 교육자의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사례였다. 특히 이숙희 선생님의 교육적 봉사는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있기에 더욱 발전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할 때 우리의 공교육은 진정한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유품교사상을 제정하여 포상하는 것은 훌륭한 교사를 발굴하고, 사기를 높이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사례를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혼신하는 선생님들에게 작으나마 영예의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

작은 재능을 찾아 큰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



강기룡
일산은행초등학교



“전등이 꺼질 날이 없는 선생님” 강기룡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퇴근시간 후에도 교실 한 켠에서 늘 새롭고 재미있는 학습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과 수업과 방과 후 창의성 수업 지도를 위해 교재연구와 사전 실습을 해봐야 마음이 놓인 성격인지라 퇴근이 늦는 날이 많다. 휴일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은 휴일인데 좀 쉬지 또 나왔어요?”라는 당직선생님의 말에 “휴일이야말로 학생들 특기 지도에 최고 좋은 날입니다.”라고 말한다.

강기룡 선생님은 학생들의 예능교육과 발명교육, 창의성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왔다. 학생들의 예능교육, 특히 우리 나라 전통 예술인 서예교육을 밤낮없이 지도해 온 것은 16년을 헤아린다. 새내기 교사 시절 수업이 끝나면 책상과 의자를 모두 한쪽으로 밀어놓고 학생들을 기초 획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 후 글자 지도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이것 네가 쓴 것이 맞니?’라고 묻기 일쑤였다. 한 번은 같은 반 학생들을 지도하여 시 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쓰는 경사가 있었다. 그 학생들의 어떤 학부모는 전근가신 강기룡 선생님 택에서 더 배우라고 방학 때 하숙을 해 가며 아이를 보내기도 하였다.

강기룡 선생님은 창의성을 복돋으는 수업방법이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흥미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창의성 교육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창의성 교육은 자연스럽게 과학 발명교육에 대한 혁신으로 이어졌다. “지적 재산권 확보의 선점 여부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창의성 교육과 발명교육에 매진했다. 토요일, 일요일, 방학도 모두 반납하고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며 탐구하고 지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변 학교와 학부모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전국 발명대회에서 수 년 동안 연거푸 큰 상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강기룡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르네상스상(특별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열정으로 가르치면 그 누구보다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직은 저의 천직인가 봅니다.”



2005년 미국 테네시주 테네시대학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는 세계 850개 초·중·고·대학 팀이 참가했다. 르네상스상은 엄격한 심사규정에 의해 창조성·예술성·기술 표현력 등이 함께 뛰어나고 심사위원 모두가 합의해야 주어지는 것으로 지난 2년간 수상팀을 내지 못한 매우 귀한 상이다.

강기룡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들은 다리 구조물 디자인 분야에 참가, 무게를 견뎌 내는 힘이 뛰어난 미국의 브룩클린 다리를 탐구·표현해 이상을 받았다. 이러한 영광은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재능을 찾아 격려하고 지도하였다. 낮과 밤, 토요일, 일요일, 방학, 잠시라도 쉬는 날이 없었다.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먼저 지쳐 쓰러질 때 그들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았다. 교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학생들의 밥을 손수 지어 먹이며 지도했다. 국내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강기룡 선생님은 “애들아 절대 아프면 안돼, 너희들의 무대는 이 곳이 아니라 저 넓은 세계야”라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주제는 다리 구조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공연과 함께 측정하는 것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전세계 다리를 모두 조사하고 탐구하였다. 다리분야 전문 교수님도 초청하여 지도도 받았다. 학생들은 발사나 무와 접착제 그리고 낚싯줄 외에는 그 어떤 재료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아침 모양의 상판과 교각에서 다리상판에 낚싯줄을 묶는 방법으로 다리 구조물을 완성시켰다.

대회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연습하고 탐구한 탓인지 학생들은 느긋하였지만 지도교사인 강기룡 선생님은 오히려 떨고 있었다. 예술성 테스트인 공연을 마치고 드디어 다리구조물 측정! 구조물측정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Good! Very good! Excellent! Wonderful!”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전했다. 당시 참가한 팀 중에서 다리 구조물을 가장 예술적이면서 견고하고 창의적으로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것이었다. 지금 그 작품은 대회 본부인 미국 테네시대학교에 영구 보존되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기룡 선생님은 “학생들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열정으로 가르치면 그 누구보다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직은 저의 천직인가 봅니다.”라고 말한다. “밤낮을 쉬지 않고 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기룡 선생님은 오늘도 미래의 세계를 누릴 초롱초롱한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며 작은 재능의 씨앗을 찾아 키우고 있다.

“제자 사랑과 가르침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하면
공교육을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며 아낌없이 주는 선생님



이임구
인천예일고등학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예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임구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은 언제나 이 말을 잊지 않는다. 1988년부터 시작된 이임구 선생님의 교직 생활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이임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주말에 갈 곳이 특별히 없어서 각종 비행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해 주말마다 인근 공원 및 체육 시설에 가서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 타기 등을 함께 하며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한때 지휘자 금난새씨가 진행했던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의 음악 여행” 프로그램을 매월 학급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 년마다 종업식이 끝난 봄방학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 학생들과 함께 사제동행 여행을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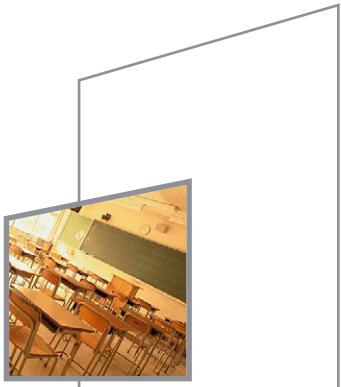
그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업의 변화에도 이어졌다.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그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교실 현장에 도입하여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도덕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10여 년전 교사의 석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영상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 그가 제작한 도덕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1,000여편 이상에 이른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영상 자료의 제작 과정에서 쌓은 교수학습 자료 제작 경험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였다. 그의 도움으로 전국 도덕 · 국어 · 역사 교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해당교과 내용의 영상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고, 질 높은 수업 자료를 다량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실 수업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제작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담은 동영상 CD를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 기증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임구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화와 정보의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제작 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력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연구학교 보고회를 전국 최

초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할 만큼 매체활용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다. 캠코더 5대 및 영상 편집 시스템 등을 자비를 들여 구입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거리로, 산으로 데리고 나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특색있는 교육을 하였다. “매체를 통해 학생들과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임구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옮기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는 그 무엇보다 학력 신장이라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1년 이상을 밤 늦도록 연구하고 정리하여 윤리 내용 정리, 고전 지문 연구 등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제공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2004년의 변화된 수능 이후 실시된 모든 윤리과 출제 문항을 모아 단원별로 정리하여 「윤리과 문제은행」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올해에도 최근 3년 동안 출제된 사회탐구 윤리 660문항을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문항 분석까지 자료화 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2008년 대학입시부터는 통합논술이 커다란 사회적 과제이고,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때 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지만 예일고등학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임구 선생님이 주도하여 구성한 통합논술 추진을 위한 연구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회는 교과별 1명씩 13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달간의 집중 노력으로 교과서 중심의 교과통합 논술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이 자료집은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공동의 주제 10개와 관련된 교과서 · 지도서 · 참고 문헌의 지문과, 이를 토대로 한 내용·요약, 관련 사례 찾기, 문제점 찾기 등의 내용·파악 중심의 글쓰기 자료들이 담겨있다. 지난해 겨울 방학 중에는 이 자료집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통합 논술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지금까지 이임구 선생님의 교직생활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자료, 학생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아낌없이 주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이었다. 그와 함께 한 많은 교사들은 그가 한 많은 노력이 학교 교육력을 높히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제자 사랑과 가르침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하면 공교육을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임구 선생님의 얼굴에서 우리교육의 희망을 보는 것 같다.



“손 기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은 우산을 펴고 접는 것도 힘겹지만 차근차근 가르치면 비가와도 끄떡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특수아동의 당당한 자립을 이끌어 주는 선생님



김상선
대구보명학교

뭔지 어울리지 않게 손을 흔들며 뛰어다니는 아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 연필을 힘겹게 쥐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아이,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 그들 사이를 누비며 어떤 아이의 코를 닦아 주기도 하고 연필을 바르게 쥐도록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살펴주는 선생님이 있다. 정신지체 장애아를 가르치는 대구보명학교 김상선 선생님이다. “정상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제각기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랑스러운 천사들과 같습니다.” “내 교실안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정신지체라는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으며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주눅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김상선 선생님은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매번 느끼게 된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이 엄마보다 하루 일찍 죽기 를 바라는 것이 마지막 남은 제 소원입니다.”라는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모성애를 접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한다. “정신지체 학생들은 갓난아기나 유아들처럼 보호자가 늘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모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이들 또한 자신감을 점점 상실해 갑니다.”

김상선 선생님은 장애 아동들에게 자립심도 키워주면서 부모들의 힘겨움도 덜어낼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활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한다. 그래서 그녀는 생활중심의 통합학습과제로 구성된 주제중심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고 한다.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씻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등에 대한 일상의 소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심 형성이 중요하지요.” “일반인들이 아무런 노력없이 당연스럽게 하는 일들을 정신지체 아이들은 아주 힘겹게 배웁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김상선 선생님은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칠 체계적인 자료들이 부족하여 교사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몇몇 자료들도 대부분 학년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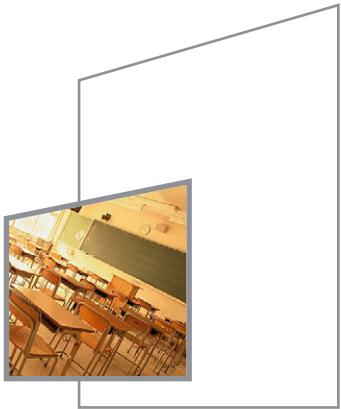
이러한 실정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녀는 생활중심의 통합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중심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년 및 학교급 과정별로 체계적인 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체의 문제였지만, 동료교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우선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부부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해마다 새 학년이 되면 3월초에 학부모 모임인 가칭 ‘학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 아이들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급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연간지도계획은 학부모에게 가정으로 통지하고 다시 ‘월중교육계획안’으로 작성하여 매월 초 가정에 발송하였으며 그날의 지도내용을 ‘재미있게 공부해요’라는 개인별 파일로 만들어 보내고 지도내용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한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결국 동료교사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서서히 학교 전체로 파급시켰다. 결국 자신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고 동료교원들을 설득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해 학교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다.

동료교사들이 힘을 합쳐 초등부 저학년 1단계, 초등부 고학년 2단계로 구성된 주제중심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우선 생활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상황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학습과제를 구성하였다. 월별 주제에 따라 주별, 일별 활동으로 내용을 세분화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이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주제중심학습’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였다. 방학도 없이 매진한 일이었다.

“생활중심의 학습과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업장면이 교실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을 생활 장면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의 강력한 전의로 대구보명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어김없이 주별 주제학습과 관련된 장소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대구보명학교에서는 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3, 4 단계의 프로그램을 작업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으뜸교사’란 호칭을 받기에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특수학교 교사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겸손함이 아이들의 웃음과 어울어져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는 수학학습 및 인성지도



우제환
대전전민고등학교

“인간은 사회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낌없이 주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항상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올바르게 살수 있지요.” 언뜻 도덕이나 윤리시간처럼 여겨지지만 대전 전민고등학교 우제환 선생님의 수학시간이다. “수학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수(數)가 있습니다. 모든 수의 근원(根源)이 되는 숫자는 0과 1입니다. 덧셈을 할 때는 0(덧셈의 항등원)이, 곱셈을 할 때는 1(곱셈의 항등원)이 수의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시의 적절하게 적용할 인생과 비슷한 수학 이야기 사례들을 모아 수업에 적용하였다. “미래 사회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이야기로 풀어가면 학생들의 창의력 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제환 선생님이 이러한 수학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좀더 알기 쉽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체득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학습 자료(수리 영역)’를 시작으로 수준별 수학 학습자료, 수학 특기·적성 교육자료, 보충학습 활용 교재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통합교과 수업모형개발, 창의적 재량활동에서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 활동, 대덕밸리와 연계한 체험 학습활동 등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모형을 창안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그는 수학 영재교육에도 힘썼다. 영재 교육에 필요한 학습 자료 12권, 영재학생 선발을 위한 영재 판별도구 등을 개발하였으며, 공주대학교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된 영재반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개별 탐구 활동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탐구심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랑사랑’이라는 동아리를 활성화시켰다. 그의 지도로 전국 중·고교 수학·과학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큰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해 졸업한 학생이 대통령 과학 장학생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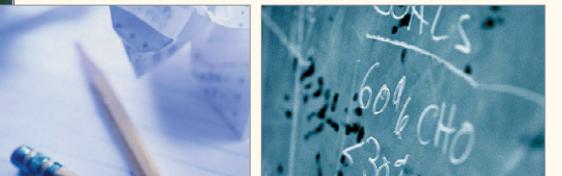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1%가 채워지면 새로운 희열이 느껴집니다. 비록 1%의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학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제환 선생님은 학생들의 의문을 학습자 수준에서 알맞게 해결할 수 있게 가르쳐서 「명쾌한 해설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영재아 선발, 수학 올림피아드대회, 국가수준 진단평가, 각종 공무원 시험 등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교원연수 강사로 참여하며 자신의 학습지도 방법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한편 일선 학교 현장의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 지원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우제환 선생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그는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변화를 통해 인성교육과 함께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장애체험 활동을 하고 장애우를 돋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 하기도 하였다. 대전과학고등학교 재직시에는 학생들의 이러한 체험 내용을 담아 봉사활동 수기집으로 발간하였다. 그의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그만의 수업상황에 적절한 문제풀이 및 인성지도를 가능하게 하였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지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지난해 3학년 부장교사를 맡아 학생들의 진학지도에도 큰 성과를 나타냈다. 역사가 짧은 대전과학고등학교의 지난해 졸업생의 진학성적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1%가 채워지면 새로운 희열이 느껴집니다. 비록 1%의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학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책무를 짊어진 사람이 우리 교사입니다. 그것이 저의 천직이지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하면서 훌륭한 교사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끼, 멋, 꿈을 키우는 선생님



강해정
심원초등학교

“산소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절, 성묘, 음식, 친척, 차례 등을 말하고, 교사들은 이영애, O2, 산소호흡기, 응급실 등을 말한다. 그러나 강해정 선생님은 ‘죽은 소’를 염두에 두고 질문한다. 그녀는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끼, 멋,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가 처음 창의성 교육을 시작 할 때는 시골학교의 지역 여건상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여 막막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창의성 교육과 연관이 있는 연수, 강의, 세미나 등을 닥치는 대로 참석하였다. 그 곳에서 얻어진 자료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수업에 적용하여 일반화 시켰다. 또한 창의성 교육을 위한 총론과 사고기법, 사고방법, 교수-학습과정안 등을 정리하여 「창의적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과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에는 창의성 교육을 접하는 모든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사용 자료, 학생용 자료, 그리고 학습지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고 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교과서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와 속담, 생동감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하는 등 수업방법을 개선하면 수업효과도 높고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정 선생님은 항상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시 수업 공개 학급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교원 대상 연구 수업, 장학협의 공개수업을 실천했다. 열린수업 연구대회와 수업개선 선도학급 대회 등에 참가하여 얻는 높은 성과는 그간의 강해정 선생님이 노력한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그녀는 “자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려는 학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학생, 질문을 좋아하고 상상력과 유창성이 뛰어난 학생, 대단한 집중력과 호기심이 많아진 학생 등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강해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은 끼와 재주를 마음껏 발휘한다고 한다. 선생님의 남다

“같은 내용이라도 교과서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와 속담, 생동감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하는 등 수업방법을 개선하면 수업효과도 높고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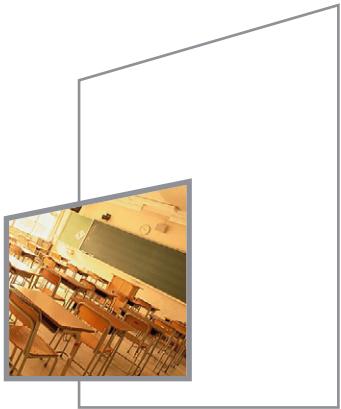
른 무용 지도 때문이다. 6세 때부터 무용을 배운 강해정 선생님은 농·어촌 학교에서만 근무하면서 가는 곳마다 열악한 지역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예능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무용반을 만들어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도하였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발레, 현대무용, 고전무용 등을 가르쳤다. 2005년에는 이렇게 지도한 학생들이 제17회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에서 특상을 받기도 했다.

“선생님! 선생님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조용하기만 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여 지도를 해주셔서 큰 꿈을 키워주시니….”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명에게 개인의 끝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소질 계발에 힘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학부모의 감사편지 내용이다.

강해정 선생님은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사랑과 봉사, 배려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인성노트 제작 활용, 한자 지도, 일기쓰기 지도, 독거노인 및 장애우 시설 위문 공연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봉사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그녀 스스로 홀로 계시는 노인들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홀로 어르신 합동 칠순잔치’에서 고전무용을 통해 기꺼이 본인의 끼와 끝을 발휘하여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강해정 선생님은 학교에서 신규교사들에게는 인자한 선배요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아 한다. 전북 고창은 해마다 신규교사가 1/3이상 발령을 받고 있고 2년이 지나면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연고지로 되돌아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신규 교사들이 시골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멘토교사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고 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뜻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저의 작은 노력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녀의 또렷또렷한 눈빛에서 우리교육의 희망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학생이나 동료 선생님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으면 마치 내 잘못인 것 같아
끝까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해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수학공부



류해수
태화중학교

류해수 선생님은 1988년 경남 한 농촌마을에서 새내기 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중학교 학생 몇몇이 산골에서 뱀을 잡아 팔아서 그 돈으로 기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군대를 갓 제대한 새내기 총각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찾기 위해 깊은 산골짜기에서 반나절을 헤맸다. 고생 끝에 보자기에 뱀을 가득담은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 그는 공부에 의욕을 잃고 방황하던 학생들을 양지바른 곳으로 불러내어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류해수 선생님은 연거푸 중3 담임을 하면서 학원을 다닐수 없는 학생들을 새벽 4시에 학교 도서관에 불러서 학습지도를 하였다. 당시 농소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를 ‘농소의 페스탈로치’라고 불렀다. 그의 교사로서의 첫 출발은 이러했다. 차갑고 논리적인 수학 선생님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온유한 눈빛이 제2의 페스탈로찌처럼 느껴진다.

“옮기는 학교마다 그 부지런함과 아이 사랑하는 마음은 꽃향기처럼 퍼져나가 주변에는 선생님을 흡모하는 팬들이 자꾸만 늘어갔었지. 그래도 그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를 훌트리지 않고 초임발령과 같은 마음으로 교단을 지키니….” 그를 잘 아는 선배교사가 칭찬한 글이다. 류해수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철저하게 수업준비를 하고 부족한 것을 배워가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0여년전 학습지도에 있어 컴퓨터 활용의 유용성을 깨닫고, 큰마음을 먹고 개인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퇴근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하루 세 시간의 잠을 자면서 컴퓨터 관련 서적을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부족하여 대학원 전산학과에 입학하여 낮에는 교사로서 밤에는 학생으로서 주경야독을 하였다. 사설 학원에 등록하여 컴퓨터 조립법까지 배우기도 하였다. 그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과외를 할 수 없는 시골 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지도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드디어 1996년 ‘류해수의 중학수학’이라는 사이트(<http://www.haesoo.com>)를 개설하였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

으며 틈틈이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시켜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로 거듭 태어났다. 2005년에는 학생들의 접속 횟수가 100만을 넘기도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수학문제 풀이 뿐만 아니라 학생생활 상담도 한다. 10여년 동안 퇴근 후에 하루 두 세 시간씩을 휴일도 없이 계속 해온 일이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가끔 익명의 비판적인 글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학생들이 용기의 글을 주어 힘을 얻는다”며 빙그레 웃는다. 이 사이트는 일선 대학 교수들이 추천하는 주요 학습사이트가 될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류해수 선생님은 어느 날 전학서류 때문에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에 “류해수입니다.”라고 하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중학수학의 그 류해수 선생님이신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한일이 학생들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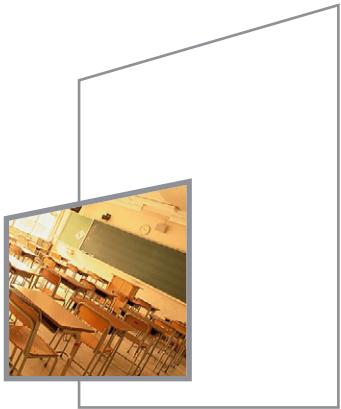
2005년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이 학습 홈페이지를 뜻을 같이하는 울산의 수학교사 12명과 함께 ‘mathulsan 학습 동아리’로 조직 개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학습자료 개발 및 ICT 활용 학습의 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류해수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학은 어렵고 지겹다는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수업에 활용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였다. ‘스타크래프트와 함께하는 집합’, ‘회전체 학습’, ‘삼각형의 오심’은 수학의 주요 개념을 학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류해수 선생님이 만든 수학 학습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다.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선생님의 뛰어난 능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도에 보급한 「수업잘하는 교사 50명」의 수업모습을 담은 동영상CD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울산의 교실수업혁신지원단 활동을 통해 동료교사들의 수업개선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그는 특이하게 수화를 배워서 수화부를 지도하며, 학생들에게 장애우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며 울산근교에 있는 특수학교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지금도 교사들을 모아 수화를 직접 지도하고 학교 축제 때에는 수화공연을 한다고 한다.

“학생이나 동료 선생님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으면 마치 내 잘못인 것 같아 끝까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류해수 선생님의 겸손함과 친절함, 학생 사랑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아마 평생을 안고가야 할 교사로서의 제 숙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미술시간,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학교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행복한 미술시간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선생님



이혜숙
창평중학교

학교 복도를 걷는데 음악이 흘러나온다. 가만히 다가가서 교실 안을 들여다본다. 다소 낡은 의자와 작업대 위에 색색의 물감과 붓이 놓여있다. 친구 그림을 보며 까르륵 웃는 얼굴과 이어폰을 끈 채 색칠에 바쁜 손들이 보인다. 한 아이는 미술 선생님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열심히 설명 중이다. 봄볕처럼 정겹고 아름다운 전남 담양의 창평중학교 미술 시간 풍경이다.

그 행복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우리의 행복한 미술시간」이라는 제목의 CD 타이틀을 폴렸다.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그린 자화상과 자신의 캐릭터, 영작만화 그리기, 오월전 작품, 창작동화책 등을 실은 창작 작품집이다. 여기선 잘나고 못나고의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작품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꿈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그려준 선생님의 캐릭터는 또 얼마나 애틋한가? 왜 이 작품집의 제목이 '우리의 행복한 미술시간' 인지 절로 짐작이 간다. 게다가 작품집만으로도 능히 학습자료 기능을 겸하였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17년의 교직생활 중 10년은 완도의 섬에서, 나머지 7년도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날로 소규모화되는 농촌학교의 아이들에게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얻은 해답이 <교과 연계 학습>이었다. 이것은 소규모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는 교과 공통의 학습주제,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교수 · 학습' 과정에 각 교과별로 상호 참여함으로써 학생이 학습목표에 도달하고, 창작물을 산출하여 성취도를 더욱 높여주는 프로젝트 학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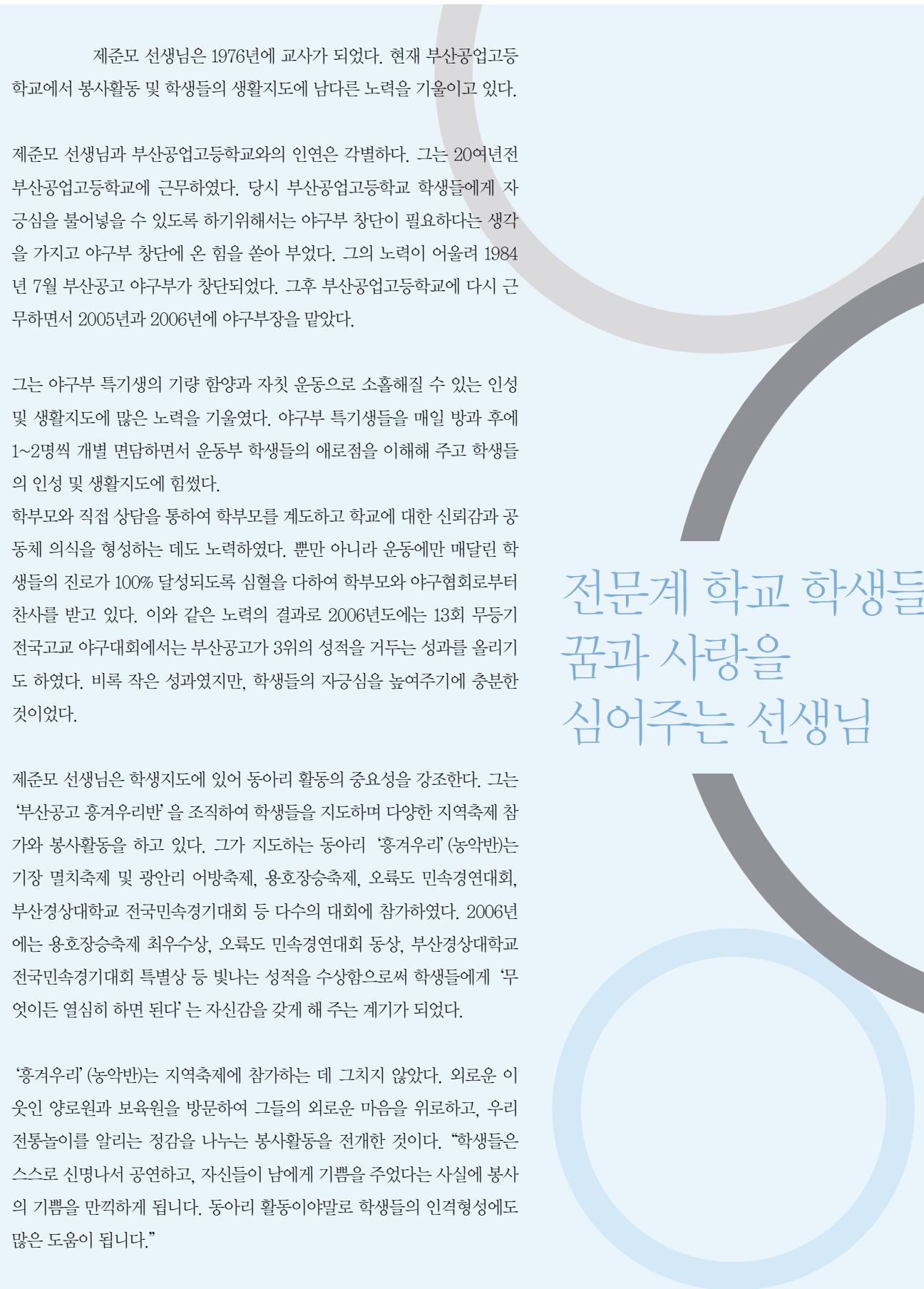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동료교사의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3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영어과와 함께 한 영작 만화 그리기 – 카툰 프로젝트>, <국어과와 함께 한 창작 동화책 만들기>, <사회과와 함께 한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 등이 그것이다. <영작 만화 그리기 – 카툰 프로젝트>는 학생이 시나리오 및 작화를 하고,

다시 영작만화로 변환하는 교과 연계 수업이다. 영어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만화라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통합적 사고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생 만화 작품집 「CARTOON」 2권을 편찬하여 학생들의 성취감과 함께 학습내용이 피드백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국어과와 함께 한 창작 동화책 만들기>는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려 책의 형태로 완성하게 하는 수업이다.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으며 현재까지 완성한 창작 동화책은 100여권에 이른다. 학생들이 만든 창작 동화책 중 우수한 몇 작품은 이 선생님이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하였다. 이 애니메이션 작품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연계 수업은 '전국문예회관'에서 공모한 우수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06년 8월,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부모가 들려주고 아이들이 만드는 이야기 그림책>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는데, 참여 시민의 호응이 대단했다. 학교현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교육 차원의 콘텐츠로서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외에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내가 빚은 그릇>,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나만의 옷 디자인하기> 프로그램이 그러하다. 특히 이 교육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고, 학교-지역 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단인 담양 예술인 창작마을 '놀이쾌 신명'과 함께 공동 주관 실시하여, 교내 전시회, 담양지역 청소년 문화 한마당 전시에 참여하였다. 또한 광주 5.18기념재단 주최 <2006 오월전> '시민광장' 프로젝트에 3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 전시함으로써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의식 고취, 다양한 청소년 문화풍토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금년에는 <교과연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사 사이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교수 · 학습 방법의 질적 향상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혜숙 선생님은 각 교과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하는데 연계수업이 매우 적절하다고 믿고 있다. 특히 '삶의 총체적 표현이 문화'라는 명구처럼, 미술은 통합적 사고력을 펼치기에 적절한 교과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교과 및 학생들의 견해를 조정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연계수업이 벅찰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동료교사를 신뢰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한다. "아마 평생을 안고가야 할 교사로서의 제 숙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미술시간,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학교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준모 선생님은 1976년에 교사가 되었다. 현재 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준모 선생님과 부산공업고등학교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는 20여년전 부산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하였다. 당시 부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야구부 창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구부 창단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그의 노력이 어울려 1984년 7월 부산공고 야구부가 창단되었다. 그후 부산공업고등학교에 다시 근무하면서 2005년과 2006년에 야구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구부 특기생의 기량 함양과 자칫 운동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인성 및 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야구부 특기생들을 매일 방과 후에 1~2명씩 개별 면담하면서 운동부 학생들의 애로점을 이해해 주고 학생들의 인성 및 생활지도에 힘썼다.

학부모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를 계도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동에만 매달린 학생들의 진로가 100% 달성되도록 심혈을 다하여 학부모와 야구협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6년도에는 13회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는 부산공고가 3위의 성적을 거두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비록 작은 성과였지만,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제준모 선생님은 학생지도에 있어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부산공고 흥겨우리반'을 조직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다양한 지역축제 참가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지도하는 동아리 '흥겨우리' (농악반)는 가장 멀치축제 및 광안리 어방축제, 용호장승축제, 오륙도 민속경연대회, 부산경상대학교 전국민속경기대회 등 다수의 대회에 참가하였다. 2006년에는 용호장승축제 최우수상, 오륙도 민속경연대회 동상, 부산경상대학교 전국민속경기대회 특별상 등 빛나는 성적을 수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흥겨우리' (농악반)는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외로운 이웃인 양로원과 보육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전통놀이를 알리는 정감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신명나서 공연하고, 자신들이 남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봉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물 한 모금도 나누어 마시는 따뜻한 정이 돋아나고, 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얹매여 자칫 경쟁관계로만 여겨지던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우칠수 있습니다.”

제준모 선생님은 부산공고의 생활부장으로 활동하며 학생부 교사와 학생 간부로 구성된 '학생회 봉사반'을 조직하였다. 비행학생을 대상으로 대안 학교를 방문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비행의 재발 방지 및 순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성교육에 힘썼다. 또한, 양로원, 보육원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며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을 남에게 나누어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기배선 보수 공사, 운동장 정비 등의 활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제준모 선생님은 주말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하는 등 사제동행 체험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물 한 모금도 나누어 마시는 따뜻한 정이 돋아나고, 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얹매여 자칫 경쟁관계로만 여겨지던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우칠수 있습니다." 그가 사제동행 등반대회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전문계 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는 선생님



제준모
부산공업고등학교

"학생 생활지도의 제 1순위는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인성 함양입니다." 그가 비행학생 예방을 위하여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과 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등 지속적인 독서 지도를 하는 까닭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칭찬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개별 칭찬을 통하여 스승과 제자사랑을 표현하고 스스로 나쁜 행동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쉬워집니다." 제준모 선생님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가르치는 자는 배움을 계울리 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한다는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 박은수 선생님이 교직에 첫발을 내딛으며 다짐한 말이다. “집안에서도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따라 배우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배움을 계울리 하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라고 되묻는 모습이 당차 보인다.

박은수 선생님은 계속된 배움 덕택으로 사물놀이, 국악지도, 영어학습지도, 컴퓨터 활용지도, 독서지도, 토론논술지도 방면에서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주는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는 계속된 배움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실수업을 개선해 보려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해마다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연구 과제를 정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온 덕분에 수업지도 방법 개선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는 수편에 이르고 이 결과를 매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논리적 표현력 기르기 지도방안, 읽기 전 학습을 통한 독해력 신장 방안, 독서 전·중·후 활동을 통한 문학 감상방안, 말하기 체험학습 자료 개발, 인터넷 댓글 달기를 활용한 토론학습 지도방안, 종체적 언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동화활용 방안, 생활 플래너를 활용한 자기관리능력 신장 방안 등이 그것이다. 박은수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것은 ‘가르침’의 문제로 고민했던 초임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장선생님의 수업장학으로 하루 시작을 열었다고 한다. 초임교사에게 교육청 대표 공개수업을 맡기신 교장선생님이 마음이 놓이질 않으셨는지 신규교사 수업장학을 손수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엘리트 선생님, 아이들 발표는 이렇게 지도해 보면 어떨까?”, “아니, 아이들 혼내놓고 교사가 뒤에서 울고 서 있으면 어떡하나?”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여리기만 했던 박은수 선생님을 임상장학을 통해 꾸준한 배움과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수업지도 능력을 키워주셨던 것이다.



수업 개선을 위해 끝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나누는 선생님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식을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박은수 선생님은 초임교사 시절 교장 선생님이 자신을 손수 지도해주셨듯이 동료·후배 교사들에게 수업컨설팅 멘토로 ‘수업 아이디어 나누기’ 운동을 실천하고, ‘찾아가는 강사’로 활동하며 수업시연 및 수업기술, 수업자료 제작 및 활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수업개선을 위해 만든 연구모임을 주도하며 「고품격 수업실천 사례」를 나누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동화책은 초등학교 독서·토론·논술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재입니다. 독서 기초기능을 익히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논제를 찾아 관점을 달리하며 토론하도록 지도하면 그 결과가 자연스레 논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수 선생님은 동화를 중심으로 교과와 연계된 도서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동화로 생각 쑥쑥, 표현 술술」이란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식을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수업전문성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동료교사들이 함께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컨설팅」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박은수 선생님은 수업지원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업지도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교사들이 수업컨설팅을 신청하면 전화와 메일로 예비 진단을 실시하고, 직접 만남을 통해 래포를 형성한다. 이 만남을 통해 도움 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수업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함께 점검하고 수업장학을 목적으로 공개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업을 요청하는 학급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연수업으로 새로운 수업모형이나 수업기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과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수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은수 선생님은 “수업컨설팅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다음해에는 멘토가 되어 또다른 선생님에게 수업노하우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라고 말한다. ‘가르치는 자는 배움을 계울리 하지 않는다.’라는 생활신조를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좀더 알찬 수업을 해 줄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되는지 늘 고민하는 박은수 선생님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본보기를 보여 준 유품교사라 하겠다.



박은수
서울대학교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충남 예당저수지를 돌면 예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응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혁선 선생님의 좌우명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1%의 잠재력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는 선생님이다.

이혁선 선생님은 교실수업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그는 ICT 활용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즐겁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ICT 활용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였다.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빈약한 가정환경과 문화환경 때문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혁선 선생님은 농촌 아이들의 정보 소양능력과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



이혁선
응산초등학교

해마다 학기 초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교육 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습 및 생활지도 계획을 세웠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폐기된 컴퓨터를 수리하여 나누어주고,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PC지원을 하나라도 더 받아 지원하려고 애썼다. 또한 효과적인 컴퓨터 활용 학습을 위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 상태를 점검해주고 전전한 컴퓨터 활용 지도는 물론 정보화에 뒤진 농촌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올바른 컴퓨터 활용 지도방법을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빈약한 가정환경과 문화환경 때문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검색자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 정보제공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이 각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해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펼쳐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활용, 워드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액셀, 홈페이지 만들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자세하고 재미있게 지도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능숙하게 검색하고 가공하여 학습 자료로 제작·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혁선 선생님과 학생들은 1년간 함께 공부한 결과들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전자앨범을 만들어 졸업기념으로 나누어 갖기도 하였다.

이혁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교과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년간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검증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업준비 OK’ 활용을 위한 수업설계안과 교수학습콘텐츠를 다수 개발하여 일반 선생님들이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는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전국단위 수업공개에서 ‘2인 1PC 활용 협력학습 수업모형’을 개발·적용하여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혁선 선생님은 일과 후에도 충청남도교육청의 「Edus 충남 사이버스쿨」 담임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교 공부가 거의 전부인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사이버 스쿨은 매우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혁선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사회, 과학 3과목의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부진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우수학생들의 심화 보충학습을 돋봐주고 있다. 그는 동료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 등에 대한 교원 연수 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의 가능성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선생님, 재미있게 가르치며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 소외된 학생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찾아다니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선생님, 잘 가르치기 위해 밤낮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 그러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혁선 선생님은 오늘도 그 희망사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계을려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사이버학습 강의실에 들어가 전교생들의 사이버 학습상황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용수 선생님의 좌우명이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형적인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선생님은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문계 과목 공부를 독학하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하였다. 자기 손으로 학비와 용돈을 모두 해결해야 했던 그는, 문화적, 교육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단에 발을 내딛었다고 한다.

“수학은 자신 있어요.” 1977년 강원도 최남단 농어촌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그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길러낸 제자들로부터 듣는 말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기를 계을리 하지 않는 성실함은 선생님의 큰 무기이다. 그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곧바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를 인정받아 ‘실기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우수교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 ‘모범수업교사’로도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농촌 벽지학교인 계촌중학교 학생들은 지역 여건상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곳 학생들은 수학성적이 대부분 80~90점대이다. 그가 소인수 학급의 이점을 살려 수준별 학습을 세분화한 개별화 학습방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는 전 학년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하여 매 시간마다 제공한다. 학생들 각자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점하며 모르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학생들은 그래서 수업시간마다 성취감을 맛본다. 또한, 수업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ICT 활용 학습을 실시한다. 특히, 함수와 도형 부분은 GSP*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도형을 작도하는 학습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용수 선생님은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원에듀 월드서버를 활용한 사이버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

벽지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만으로도 도시 학생들 보다 앞서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EBS에서 제공하는 교육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결과 학생들의 성적이 관내는 물론 도내 중학교 성적에 비추어 현격하게 앞서 있어 벽지 및 소규모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수
계촌중학교

농촌 벽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선생님



이러한 학습지도가 가능한 것은 그가 수업활동에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이도사’라고 부른다. 이용수 선생님은 우리나라 학교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982년부터, 컴퓨터가 수업매체 뿐만 아니라 각종 교무업무 효율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다. 책과 TV방송을 활용한 독학으로 그는 정보처리산업 기사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교무 업무 종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고, NEIS가 구축되기 이전 ‘고입 내신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 강원도 내 모든 학교가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직접 컴퓨터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현장에 적용할 만큼 남다른 노력도 기울였다. 전 학년 전 단원 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ICT자료를 수집·제작하는 한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부문과 도형부문 지도를 위한 수학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진행하였다.

컴퓨터를 오락이나 채팅 등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던 아이들에게 훌륭한 학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공부는 즐거운 활동이라는 것, 벽지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만으로도 도시 학생들 보다 앞서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는 이용수 선생님이야 말로 농촌 벽지 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라 하겠다.

* GSP(geometry sketch pad) : 일종의 도형 기하 작도 학습 프로그램

“오뉴월의 초록을 닮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키에 맞게 드리운 나뭇가지를 뻗혀 푸른 잎으로 아이들을 따가운 햇볕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경북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장에 근무하는 김해숙 교사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는 교실에선 늘 어둡거나 우울한 아이들에게 먼저 손길을 건내며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고 한다.

“진주보다 더 곱고 수정보다 더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내 아들, 내 딸로 생각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고운 섬성이 활짝 꽂피우게 됩니다.” 김해숙 선생님은 인성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결손가정으로 인하여 소외된 아동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발표하기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아이들과 둘 만의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이러한 노력들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간다고 믿는다.

“농촌은 소규모 학급 특성이 있어 나름대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학습내용을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지요.” 김해숙 선생님은 문경팔경을 배경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등 찾아가서 배우는 체험학습 활동 등을 통해 지역문화와 연계한 나름대로 독창적인 교육활동을 하기도 한다. “실천 과정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교사가 노력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돌아 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실천합니다.”

김해숙 선생님은 독서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시골 학교에 근무하면서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적게 받은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으로 문화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지도라는 확신을 가졌다. “꾸준한 독서지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일부분으로 체득화시키고 아동의 사고력, 이해력, 창의력이 높아져 모든 교과의 기초 학습력이 신장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에서 독서는 문화격차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녀는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위해 개인차가 다양한 아동들에게 적합한 학급 문고를 조성하였다. 필독도서와 300여권이 넘는 책들을 중심으로 구

“실천 과정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교사가 노력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돌아 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실천합니다.”

성하고 개성과 취미를 살린 수준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풍요로운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을 키워나가는 꿈나무들」이라는 김해숙 선생님의 독서교육 프로젝트는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동화사냥’, ‘부모님과 함께 하는 독서체험’,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의 폭을 키우는 것임을 은연중에 알게 하는 ‘동화 속 주인공과 함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김해숙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장

김해숙 선생님은 경상북도 문경교육청으로부터 우수한 수업능력을 인정받아 수업명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수업방법을 동료교사들에게도 적극 전파한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운영 사례와 우수 수업사례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자 교사들의 연수가 있는 곳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 나누어 준다. 또한, 그녀만의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아이디어 등을 E-mail을 통해 동료교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김해숙 선생님이 근무한 학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을 놀라게 했다.

“해마다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느낄 수 있다. 한결같은 열의와 성실함으로 늘 따뜻한 선생님, 아이들의 개성을 충분히 키워주는 선생님이 우리 교육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



“학생들이 있기에 우리 교사들의 존재 가치가 있지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굳센 의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 하나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운암초등학교의 배록현 선생님은 야영 및 산악 체험 활동을 통한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영 및 산악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의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한 산악회 활동으로 주변의 산과 야영장을 찾아 다니기를 좋아했다. 교사가 되어서는 학생들과 함께 야영과 산악 체험을 할 수 있는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를 자원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야영 및 산악 체험 활동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생활지도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야영을 함께하며 별빛을 바라보며 나누는 사제간의 대화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부자간의 정보보다도 더 깊은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교육 활동에 있어 야영 및 산악 체험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배록현 선생님은 이러한 체험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성 수련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게임, 체험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심성 수련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촛불의식을 자주 활용한다. “촛불의식을 치루고 나면, 학생들이 카타르시스와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평소에 말문을 열지 않던 학생들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듯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냥 말썽만 피웠던 학생의 처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 학생도 저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가 야영 및 산악 체험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는 것은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도전정신을 길러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와 학생 간의 대화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기적이며 협동심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학교 교육에서 계발 활동을 통한 야영 생활이나 베이스 활동, 출사 등의 모든 활동은 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동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 힘들어 보였던 일들을 해냄으로써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배록현 선생님은 초등학교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한 산악부 활동을 지도한다. 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히도록 하고, 주변의 산이나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찾아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고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교육을 지속해 왔다.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무등산과, 월출산 국립공원의

체험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을 키우는 선생님



“야영을 함께하며 별빛을 바라보며 나누는 사제간의 대화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부자간의 정보보다도 더 깊은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배록현
광주운암초등학교

쓰레기 줍기 등의 자연 친화적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학부모가 희망 할 경우 자녀와 함께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지역 등산학교나 체험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학습 안내자 역할도 하고 있다.

“학생들을 인솔하고 야영 활동을 떠나면 돌아오는 시간까지 며칠이든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곳은 없는지, 학생들의 건강은 이상이 없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록현 선생님은 야영 및 산악 체험을 통한 교육 활동이 인성 교육에 매우 효과가 있지만, 지도 교사의 지나친 책임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주 갖게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한다. 대한 산악연맹 부교수로 활동하기도 하는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야영 및 산악 체험 교육 자료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배록현 선생님은 교실 밖 교육 뿐만 아니라 교실 안 교육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수학 영재아를 모아 밤늦도록 지도한 결과, 학생들이 광주시 수학 경시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편에 없는 교육을 실천 하자는 마음으로 ‘스스로 뽑는 좌석 배정, 1일 운번 반장제 운영, 체벌 없는 학급 운영’ 등 독창적인 학급 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신뢰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배록현 선생님은 매년마다 학급 문집을 만들고 있다. 1999년 용봉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과의 한 해 동안 추억을 담은 학급 문집 「밀레니엄 청개구리」를 만들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는 현장 학습이나 학교 생활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전자 앨범’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디지털 세대 선생님이기도 하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 배록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6학년 일년 동안 저는 선생님이 무지 존경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저희 반을 이끄시는데 다른 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배록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수줍게 웃었다.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아름다움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교과를 잘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요.” 경상남도교육청이 2006년 「수업명사」로 선정한 황영란 선생님의 말이다.

황영란 선생님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뜻 어수선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교실 이곳 저곳에서 아동들이 학습결과로 정리해둔 다양한 작품들과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완성을 기다리는 작품들을 금새 발견해낼 수 있다. 교실 한 쪽에는 아동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작품 하나 하나를 들쳐볼 때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쏟아부었을 정성과 그런 활동을 통하여 선생님과 소통하고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고 자라는 아이들이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황영란 선생님은 「재미있는 미술시간 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특성상 구체적 조작활동이 많은 미술교과를 통해 통합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에게 미술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줌으로써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 미술을 통하여 생각이 풍부한 아이들’로 변화시켜 자신감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녀는 기존의 교수 학습 방법을 과감히 뛰어넘으며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기술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녀의 미술 수업은 조형 활동에 앞서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법, 주제에 대한 탐색과 미적체험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적 체험 활동시간이 매우 중요하지요. 찢고, 자르고, 구기고, 구멍을 뚫거나 태우고, 물에 적셔 보고, 두드리고, 비틀어 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탐색한 후 자신의 표현의도에 맞는 기법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들의 자유로운 표현력을 유도하기 위한 그만의 수업 비법이다. 2005년에는 진주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인 ‘세계 전통의상 페스티벌’을 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40여 일간의 세계의상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은 학교수업이 생활 속 문화 활동과 현실에 적용된 좋은 예라고 평가할 만 하다.

황영란 선생님은 그녀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생각 키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들은 아침활동으로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여 자세히 관찰한 후 세밀화로 표현하고 그것을 가상의 우주 소년 ‘토토’에게 소개하는 글쓰기를 한다. “학생들은 평소 무심코 대하는 생활 속의 사물들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고 관찰력과 표현력이 쑥쑥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녀의 수업방법이 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적 체험 활동시간이 매우 중요하지요. 찢고, 자르고, 구기고, 구멍을 뚫거나 태우고, 물에 적셔 보고, 두드리고, 비틀어 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탐색한 후 자신의 표현의도에 맞는 기법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86개의 주제에 대한 탐구공동체 토론수업이다.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미숙한 대화와 수업 중 부족한 발표력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실시하게 된 수업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자신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 영상물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한다. 뒤늦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딸만큼 열정적이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정신적으로 미숙한 친구의 등교를 도와주는 우정과 배려의 모습, 책임감 있는 역할 등을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 활용함으로써 감동 수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황영란 선생님의 독서지도 방법도 남다른 면이 있다. 해마다 학기초가 되면 ‘좋은 책 나누어 읽기’ 활동을 통해 책을 기부, 수집하여 700~800여 권을 책을 구비한 학급문고를 마련한다. 책읽기를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정해진 양의 책을 읽고나면 지역사회와 제과점에서 빵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공동체 활동의 모범을 보여 준 것이었다.

황영란 선생님은 사랑을 가꾸는 선생님이다. 학급 아이들을 1박2일 동안 초대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과 같이 시장보고 밤해 먹기, 영화보기, 발길이 맞추기 등 다양한 놀이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제간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그녀는 주마다 한번씩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초등 교육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눈빛을 읽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찾아 최선을 다해 온몸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도 국가로부터 40명의 아이사랑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황영란
금산초등학교

‘아이 사랑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수업명사’



평생 이어지는 백발 노교사의 “가갸거겨” 가르침



이숙희
전 광주초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입구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광주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서면 매주 화요일마다 노인상담 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숙희 전 광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교실 한켠에선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갸거겨” 한글공부에 여념이 없다. “젊은 사람도 아닌 칠순을 앞에 둔 어머님께서 이정도 변하신 것은 인생 대역전이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교실 반 학생의 며느리의 말처럼 이숙희 선생님은 문맹노인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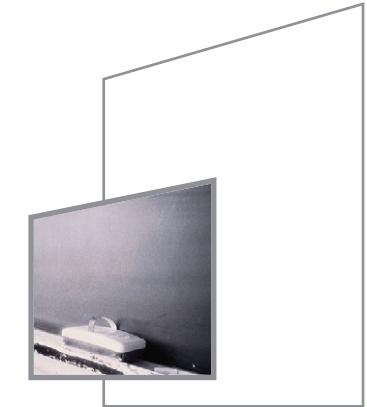
이숙희 선생님은 8년전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였다. 퇴직까지 만 사십 사년을 교사, 교감, 장학사, 교장을 거치며 교육의 씨앗을 파종해 온 사람이다. 그러한 그의 교육사랑은 퇴직 후에도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녀는 “평생 남을 가르쳐온 교사가 퇴직 후에 등산이나 다니고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예요.”라고 말한다. 이숙희 선생님은 퇴직후 한글 미해득 문맹 노인을 위해 한글을 지도하며 그림일기 쓰기 및 손주·며느리에게 카드와 편지 쓰기 등을 가르쳤다. 조실부모한 후에 웜막살이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남의 땅을 얻어서 소작을 하거나, 17살에 첨첩산골로 시집가서 마지못해 배움을 중단한 안타까운 분들에게 새삶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녀는 “암을 향하여 생을 다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며 노인들의 배움에 열정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뒤늦게 배운 이들의 글들은 노인 한글반 작품집에 담아 발간되기도 하였고 시화전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숙희 선생님의 노력에 힘입어 작년에는 광주시 노인 복지회관 개관과 더불어 한글교실 회원 120여명이 수준별 4학급 편성으로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숙희 선생님은 문맹자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여 지자체와 함께 한글교실을 더욱 확대하여 100여명의 강사요원을 확충하고 다문화 가정의 코시안에 대한 찾아가는 한글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숙희 선생님은 매주 화요일은 노인상담교실을 운영하여 실버인생을 사는 노인들의 정신적 친구 역할 및 조언자의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다. 또한 각 그 자신이 노인들과 하나되어 사물놀이 상체를 맡아 2002년에는 전국대회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숙희 선생님은 지역사회 단체에서 태교교육 및 예절교육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교 지도사과정 이수 및 예절사 자격 고시에 응시하여 1급 자격증을 획득한 후 2007년 현재 경기도 120여개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태교교육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여성 태교 강의 실시 및 한국 예절교육협회 이사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꿈, 미소, 사랑, 봉사, 나눔, 마음의 온기… 그런가 하면 하나 꼭 빼버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비관, 불평, 나태, 부정적 생각, 늘 차가운 마음… 자기 삶에 무엇을 보태고 빼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과 빛깔이 바뀝니다”



“예절이 아니면 보지 말아라, 예절이 아니면 듣지 말아라, 예절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라는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요.” 어느 초등학교 예절교육 현장에서 큰절, 평절 및 식사예절 등을 가르치며 들려 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말씀이었다며 편지를 보내온 학생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예절교육하면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지요. 그렇지만 예전의 색다른 환경과 사라져가는 풍습을 이야기하면 곧 흥미 있어 합니다” 이숙희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항상 효과적인 수업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학부모, 직장인 대상의 예절 교육 프로그램은 제사상 차림, 다도, 한복 바로 입기, 평절 및 큰절하기, 배례법과 공수법, 문상 갈 때의 예절 등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큰 일들이기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연수 과정도 그만큼 진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남편에게 칭찬 받았어요.” 결혼식장에서 한복의 옷고름이 풀어져 당황하고 있는 어느 축하객을 보고 다가가 익숙하게 옷고름을 매주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으며 제법이라고 한마디 하는 남편의 칭찬을 전하는 어느 학부모의 기분 좋은 연수 후일담 한마디가 전해진다.

이숙희 선생님, 그녀의 삶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후배 교사들에게는 경기도 교육청 원로장학관으로서 장학지원에 힘쓰는 한편, 경기 금빛 평생 교육 봉사단 단원으로 위촉받아 학교평가위원, 인사위원, 분쟁조정위원 및 혁신과제 추진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꿈, 미소, 사랑, 봉사, 나눔, 마음의 온기… 그런가 하면 하나 꼭 빼버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비관, 불평, 나태, 부정적 생각, 늘 차가운 마음… 자기 삶에 무엇을 보태고 빼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과 빛깔이 바뀝니다”라고 말하며 빛 고운 은회색 머리의 세월과 함께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 교육사랑에 흠뻑 빠진 영원한 유품교사임이 틀림없다.



선생님을 신바람 나게 하는 “우리 선생님 자랑대회”



최진성
전 인천연성초등학교

“현장 교육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은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적, 제도적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장 교육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은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적, 제도적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인천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성 선생님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여념이 없다.

“선생님이 신바람 나야 교육이 살고, 흔들리는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시도한 사업이 ‘우리 선생님 자랑대회’입니다.”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의 귀감이 될 사례를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발굴하여 칭찬해주자는 것이 ‘우리 선생님 자랑대회’의 목적이다. 그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호응해 줄지도 의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단체 회원인 각급학교 어머니회장을 찾아 다니며 적극적으로 취지를 설명하였다. 대회 요강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취지와 목적을 공문에 담아 관계기관에 협조도 부탁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선생님을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시비 전화도 있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호응은 매우 좋았다. 많은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감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십사위원들은 응모된 사례를 모두 책자로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자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열악한 예산을 고려하여 몇몇 사람이 나누어 직접 컴퓨터로 편집작업을 하여 인쇄비를 절약하였다고 한다.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하였다. 숨겨져 있던 선생님들의 훌륭한 모습들이 영상과 함께 소개 될 때 속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때로는 발표도중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속출되었다. “참석한 학부모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꾸밈 없는 학생들의 선생님 자랑을 통하여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성 선생님은 41년간을 교직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으로, 한편으로 장학사, 장학관으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인천 강화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정년퇴

직 후에도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그린플러스 명예 장학관으로 추대되어 100여회 이상 각 학교와 교육청에 초청되어 교직원 연수를 통한 교사들의 사명감 고취와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사랑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어린이를 소중하게, 어린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힘쓰고 있다. 사단법인 색동회 인천지회장을 맡으며 매년 동화 구연대회를 개최하고, 5월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연극공연’과 ‘색동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최진성 선생님은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 즐거운 학교 만들기, 활기찬 지역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자체로부터 ‘청소년 드롭인 센터’와 ‘성문화 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소년 문제 예방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퀴즈대회, 도서 도우미 연수, 신입생 학부모 교육 등을 도맡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 교장, 교육장 등을 하면서, 학교 교육 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을 훌륭히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가 한 몸이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재직할 때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었고, 퇴직해서도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늘의 뜻에 감사히 여기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던 손길, 사회봉사로 이어진다



이종원
전 대구과학고등학교

“재직시 학생들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언제 정해진 시간이 다 흘렀는지 모르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푹 빠져 지냈다”

“교사경험이 현장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지역문화 해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한번 교사이면 죽을 때까지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7년전에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명예퇴임한 이종원 선생님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역시 선생님이다!”라는 주위의 평을 듣고 있다.

이종원 선생님은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간다는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 선 이래, 초·중·고를
두루 거치며 42년 동안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 했다. 2000년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명퇴한 것이 아쉽다는 이종원 선생님은 “재직시 학생들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언제 정
해진 시간이 다 흘렀는지 모르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푹 빠져 지냈다”고 한다.

그는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털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재직했던 대구
과학고에 1천만원을 아낌없이 꾸며졌다. 당시 장학기금이 전혀 없는 대구과학고는 이를 밑천으로 여러
사람이 출연한 기금이 모여 몇 배로 늘게 되었으며, 여기서 나온 이자로 해마다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는 재직시 승진보다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평교사로 근무하면서 졸업반 담임을 주로 맡았다. 또한, 중등교육에 있어 최고의 결실은 한 사람
의 제자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라고 신념아래 진학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공납금
을 못내 퇴학될 제자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서명한 책을 선물하기도 할 만큼
이종원 선생님은 제자사랑이 남달랐다.

이종원 선생님의 퇴직후 삶 역시 “으뜸 선생님” 답다. 남은 삶을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사람
의 정기적인 모임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구시내 중등에서 퇴직한 교원을 규합하여 50여명의 회
원으로 ‘진우회’를 조직하였다. ‘진우회’는 ‘재직시 학생의 진학지도에 열정을 받친 동료들의 모임’이라
는 의미가 담겨있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교양 문화사업 전개,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7년째 모임에 앞장
서고 있다. 회원들과 제자들의 글을 엮어 ‘진우’란 회지를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진우회쉼터’란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의 교양증진과 정서순화, 성숙한 삶을 위한 교양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생님은 문화해설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구중구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0명 회원을
거느린 문화해설단 사무국장을 맡아 지역문화 해설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는 “교사경험이 현장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지역문화 해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종원 선생님
은 대구소비자연맹에서 교육 홍보위원으로 있으면서 사회과목 담당 교사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평소에는
전화로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비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담활동에 주력하고, 각종단체나 학교에서 소
비자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종원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천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은사님 덕분이
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안동사범학교 졸업 21년째 되던 해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기생을 모아 대구서
은사님을 모신 제1회 모임을 주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마다 전국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동기생들의 글
과 작품을 모아 ‘사도339’란 이름으로 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내년은 졸업 50주년을 맞는 다며 특집호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원 선생님은 아직까지 옛 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자를 비롯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매주 2~3회 유익한 정보나 삶의 지혜가 담긴 교양정보 등을 E-메
일로 제공하여 제자들이나 메일수신자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그는 교직생활을 통해 틈틈이 썼던 글들
을 묶어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란 개인문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교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퇴직후에도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며, 하루
해가 항상 모자라는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 으뜸교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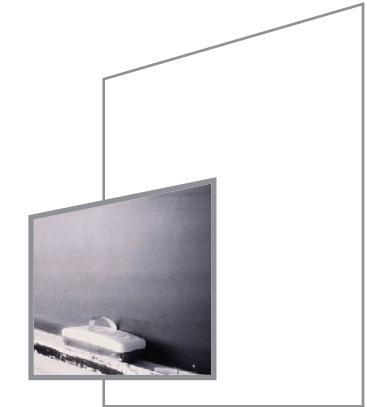


“어떻게 잘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은 평생의 과업



임좌빈
전 수촌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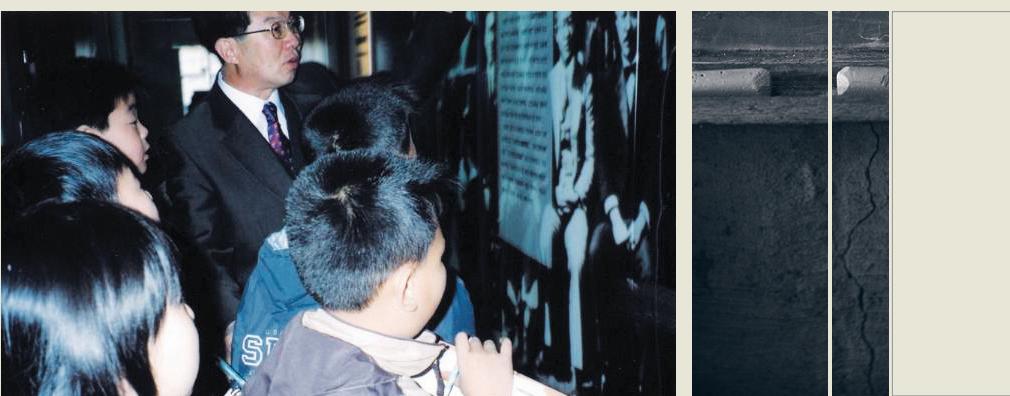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노력한 일들은 그분들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임좌빈 선생님은 농촌에서 태어났기에 농촌이 좋아 교직 생활을 면단위 이하에서만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그는 “도시는 속칭 치맛바람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농촌을 고집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육환경이 도시보다 열악한 농촌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첫 번째로 부딪치는 어려움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또는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지도도 해보고, 학교 관사에서 살면서 야간에 호롱불 밑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과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임좌빈 선생님은 이때부터 수학 교과교육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셈을 지도하다가 아동들이 감감법(減減法)과 감가법(減加法)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감법과 감가법은 일종의 셈법인데, 아동들에게 감가법을 먼저 지도하고 감가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감감법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는 이에 대한 연구로 현장연구대회의 최고상인 푸른기장을 수상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학교과 지도 방법에 대한 그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학생들이 자릿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방법, 계산의 오류 유형별 치료 방안, 분수 계산의 오류 유형별 치료 방안, 오답 노트 활용을 통한 학생 개인별 오류 원인 진단과 치료 방안 등 그의 현장연구 결과는 교실에서 연구되어 즉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실용적인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충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가 지금껏 후배 교사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충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위한 「산수학습사전」이란 장학자료를 발간·보급하였다. 일선학교의 호응이 좋았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학습」을 학년수준별로 달리하여 3종을 개발하고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현재까지도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학과 심화학습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충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를 이끌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학 보충학습 자료와 사이버 상에서 자기의 수학 실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학업성취 사이버 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임좌빈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교장이 되어서도 식을 줄을 몰랐다. 교사들이 새학기와 더불어 차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교육 계획서와 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봄 방학 이전에 완성하였다. 농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인근 3개 학교가 체육대회, 체험학습, 소풍, 교과전담교사 활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급식 시간에는 손수 학생들의 젓가락 바로잡기 지도, 음식물을 고루 섭취하는 편식예방 교육, 식사예절 등을 개별지도하고 나서야 맨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자상함도 있었다. 자칫, 직접 가르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는 교장의 자리이지만, 그는 매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한문지도를 도맡아 했다고 한다.

“교사는 비록 퇴직했어도 ‘어떻게 잘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평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후배 교사들이 다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큰 손실이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충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 명예회원으로 참여하며 후배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세상이 변해 학생들은 점점 다루기가 어렵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도 많구요…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노력한 일들은 그분들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묵묵히 노력한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